연암집 읽기 제1강 강의안

제1강 : 무릇 글이란 이런 거지

1. 글은 뜻만 드러내면 그만이다(공작관문고서)

- 글은 뜻만 드러내면 그만이다(文以寫意則止而已矣)
- 말은 뜻만 전달하면 그만이다(子曰 辭達而已矣).
- 시경 삼백편을 한 마디로 말하면(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 다산 정약용의 경우 : 後世詩律 當以杜工部爲孔子 蓋其詩之所以冠冕百家者 以得三百篇遺意也 三百篇者 皆忠臣孝子烈婦良友惻怛忠厚之發 不愛君憂國非詩也 不傷時憤俗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故志不立學不醇 不聞大道 不能有致君澤民之心者 不能作詩 汝其勉之(寄淵兒)
- 진실한 글쓰기를 위해서는?
- 장자, 천풍부 : 子綦曰 夫大塊噫氣 其名爲風 是唯無作 作則萬竅怒呺 而 獨不聞之翏翏乎 山林之畏佳 大木百圍之竅穴 似鼻 似口 似耳 似枅 似圈 似臼 似洼者 似汚者 激者 謞者 叱者 吸者 叫者 謞者 宎者 咬者...
- 글을 꾸미는 것은 용모를 꾸미는 것과 같다.
- 아무리 하찮은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장자, 지북유편 : 稊稗 瓦甓 屎溺)
- 이명과 코골이의 비유

孔雀舘文稿序

文以寫意則止而已矣니 彼臨題操毫하야 忽思古語하고 强覓經旨하며 假意謹嚴하야 逐字矜莊者 譬如招工寫眞에 更容貌而前也니 目視不轉하고 衣紋如拭하야 失其常度면 雖良畵史라도 難得其眞이라 爲文者亦何異於是哉아

글은 뜻만 드러내면 그만이다. 글제를 앞에 두고 붓을 쥐고서 갑자기 옛말을 생각하고 억지로 경전의 뜻을 찾으며 거짓으로 근엄한 체하여 글자마다 엄숙한 척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화공을 불러 자기 모습을 그리게 할 때 용모를 고치고 나서는 것과 같다. 시선이 움직이지 않고 옷자락의 주

름도 법식과 같아서 평소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비록 뛰어난 화공이라 하더라도 참 모습을 그리기 어려울 것이다. 글을 짓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語不必大며 道分毫釐하나니 所可道也면 瓦礫何棄리오 故檮杌惡獸나 楚史取名하고 椎埋劇盜를 遷固是叙하나니 爲文者惟其眞而已矣라 以是觀之컨대 得失在我요 毁譽在人이니 譬如耳鳴而鼻鼾이라

말을 꼭 거창하게 할 것이 없고 도는 털끝만한 차이로 나뉘는 법이니 내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와 조각이나 돌 부스러기인들 어찌 버리겠는가. 그래서 도올은 흉악한 짐승이지만 초나라 역사서의 이름으로 선택되었고 사람을 때려죽이고 땅에 파묻는 극악한 도적들을 사마천과 반고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니 글을 짓는 것은 오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인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글을 잘 짓고 못짓고는 나에게 달려 있고 비방과 칭찬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귀가 울고 코를 고는 것과 같다.

小兒嬉庭에 其耳忽鳴하니 啞然而喜하야 潛謂鄰兒曰 爾聽此聲하라 我耳其嚶하야 奏鞞吹笙하고 其團如星이라 鄰兒傾耳相接이로되 竟無所聽하니 閔然叫號하야 恨人之不知也라

어린 아이가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귀가 울자 놀라 기뻐하면서 이웃집 아이에게 말했다.
“너 이 소리를 들어봐라. 내 귀에서 앵앵 소리가 나는데 마치 피리소리 같아서 동글동글 별 같다.” 이웃집 아이가 귀를 기울여 서로 대보았지만 끝내 듣지 못하자 슬피 부르짖으면서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했다.

嘗與鄉人宿에 鼾息磊磊하야 如哇如嘯하며 如嘆如噓하며 如

吹火하며 如鼎之沸하며 如空車之頓轍하며 引者鋸吼하고 噴者豕豹러니 被人提醒하얀 勃然而怒曰 我無是矣라하니라

일찍이 시골 사람과 함께 잠을 잘 적에 코고는 소리가 우렁차서 어떤 때는 토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휘파람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탄식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불을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솥 안의 물이 끓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빈 수레가 덜컹 거리는 것 같고 숨을 들이 쉴 때는 드르렁거리며 톱질하는 소리가 나더니 내 쉴 때는 마치 새끼돼지가 씨끈대는 소리가 났다. 다른 사람이 흔들어 깨우자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코를 곤 적이 없다.”고 하였다.

嗟乎라 己所獨知者 常患人之不知하고 己所未悟者 惡人先覺하나니 豈獨鼻耳有是病哉아 文章도 亦有甚焉耳니 耳鳴은 病也로되 閔人之不知어든 況其不病者乎며 鼻鼾은 非病也로되 怒人之提醒이어든 況其病者乎아 故覽斯卷者不棄瓦礫이면 則畵史之渲墨으로 可得劇盜之突髻이요 毋聽耳鳴하고 醒我鼻鼾이면 則庶乎作者之意也리라

아! 자기 홀로 아는 경우는 늘 남이 몰라줄까 걱정하고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먼저 깨우쳐주는 것을 싫어하니 어찌 귀가 울고 코를 고는 경우에만 이런 병이 있겠는가. 문장에도 이런 병통이 있는데 정도가 더 심할 뿐이다. 귀가 우는 것은 병인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슬퍼하는데 하물며 병이 아닌 경우이겠는가. 코를 고는 것은 병이 아닌데도 남이 흔들어 깨워주면 화를 내는데 하물며 병인 경우이겠는가. 그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이가 기와 조각이나 돌 부스러기조차도 버리지 않는다면 화공의 먹물이 퍼진 곳에서 극악한 도적의 구레나룻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귀가 울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코를 곤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작자의 뜻에 가까울 것이다.

2. 백 번 싸워 이긴 글(소단적치인)

- 소단적치란?
- 글쓰기와 병법의 유사점
- 전쟁에서 장수가 중요하듯 글쓰기에는 뜻이 중요하다
- 뜻이 훌륭하고 도리에 맞으면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라도 쓸모가 있다
- 적절한 비유와 꼭 맞는 고사를 활용해야 한다
- 갈 길이 분명한 글 : 蹊逕을 알아야 한다.
- 합변의 논리 : 在時 不在法

騷壇赤幟引

善爲文者는 其知兵乎인저 字譬則士也요 意譬則將也요 題目者는 敵國也요 掌故者는 戰場墟壘也요 束字爲句하고 團句成章은 猶隊伍行陣也라 韻以聲之하고 詞以耀之는 猶金鼓旌旗也요 照應者는 烽埈也요 譬喩者는 遊騎也요 抑揚反復者는 鏖戰撕殺也요 破題而結束者는 先登而擒敵也요 貴含蓄者는 不禽二毛也요 有餘音者는 振旅而凱旋也라

글을 잘 짓는 이는 아마도 병법을 잘 알 것이다. 글자는 비유하자면 군사이고 뜻은 비유하자면 장수이고 제목은 적국이고 고사를 다루는 것은 전장의 진지이고 글자를 묶어서 구를 마들고 구를 엮어서 장을 이루는 것은 대오를 지어 행진하는 것과 같다. 운율을 맞추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징과 북을 치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과 같고, 앞뒤의 문구가 서로 호응하는 것은 봉화이고 비유는 기병을 달리게 하는 것이고 억양하고 반복하는 것은 서로 싸워 무찌르고 붙잡아 죽이는 것이고 제목을 풀이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적진에 먼저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것이고 함축을 중시하는 것은 늙은이를 붙잡지 않는 것이고 여운을 남기는 것은 군대를 정돈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夫長平之卒이 其勇恟非異於昔時也요 弓矛戈鋋이 其利

鈍非變於前日也언마는 然而廉頗將之 則足以制勝이요 趙括代之 則足以自坑이라 故善爲兵者 無可棄之卒이요 善爲文者 無可擇之字라 苟得其將이면 則鉏耰棘矜이 盡化勁悍하고 而裂幅揭竿하야도 頓新精彩矣요 苟得其理면 則家人常談도 猶列學官하고 而童謳里諺도 亦屬爾雅矣라 故文之不工은 非字之罪也니

저 장평의 군졸은 용감하고 비겁함이 지난 날과 다르지 아니하였으며 활과 창 따위의 예리하고 둔함이 전날과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염파가 거느릴 때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조괄이 대신하자 스스로 무덤을 파기에 충분하였다. 그 때문에 군대를 잘 거느리는 자는 버려도 될 군졸이 없고 글을 잘 짓는 자는 가려낼 만한 글자가 없다. 참으로 마땅한 장수를 얻으면 호미나 곰방메, 가시나무로 만든 창을 들려주어도 모두 굳세고 사나운 군졸이 되고 헝겊을 찢어 장대에 매달아도 갑자기 예리한 광채가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참으로 도리를 얻은 경우라면 집안사람들이 늘 하는 말도 오히려 학관에 배열될 수 있고 아이들의 노래나 고을의 속담도 이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글이 뛰어나지 못한 것은 글자의 죄가 아니다.

彼評字句之雅俗하고 論篇章之高下者는 皆不識合變之機와 而制勝之權者也니 譬如不勇之將이 心無定策하야 猝然臨題에 屹如堅城하야 眼前之筆墨이 先挫於山上之草木하고 而胸裏之記誦이 已化爲沙中之猿鶴矣라

자구가 우아하니 속되니 하고 평가하고 편장의 고하나 따지고 있는 자들은 모두 병법에 맞게 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할 기회와 승리를 일구어낼 권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비유하자면 용맹하지 못한 장수가 마음에 일정한 계책 없이 갑자기 제목을 마주하고 보니 마치 견고하게 우뚝 솟은 성과 같아서 눈 앞의 붓과 먹이 먼저 산 위의 초목에 꺾이고 가슴 속에 외우고 있던 내용이

이미 모래 속의 원숭이와 학이 되어 버린다.

故爲文者 其患常在乎自迷蹊逕하야 未得要領이라 夫蹊逕之不明이면 則一字難下하야 而常病其遲澀하고 要領之未得이면 則周匝雖密이나 而猶患其踈漏니 譬如陰陵失道而名騅不逝하고 剛車重圍而六騾已遁矣라 苟能單辭而挈領이 如雪夜之入蔡하고 片言而抽綮 如三鼓而奪關하면 則爲文之道如此而至矣라

그 때문에 글을 짓는 이는 그 근심이 늘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잃고 요령을 얻지 못하는 데에 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 글자도 적기 어려워서 늘 더디고 더듬거리게 될까 걱정하고 요령을 얻지 못하면 두루 엮기를 아무리 치밀하게 해도 오히려 성길까 걱정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음릉에서 길을 잃어버리자 명마였던 오추마가 달리지 못하고, 무강거로 포위했지만 육라가 이미 도망쳐 버린 것과 같다. 참으로 한 마디 말로 요령을 꺼집어내기를 눈 오는 밤에 채주를 기습하듯 할 수 있고, 반 마디 말로 핵심을 뽑아내기를 북이 세 번 울린 뒤 관문을 빼앗들이 할 수 있다면 글을 쓰는 도리가 지극하다 할 것이다.

友人李仲存이 集東人古今科體하야 彙爲十卷하고 名之曰騷壇赤幟라하니 嗚呼라 此皆得勝之兵이요 而百戰之餘也라 雖其體格不同하고 精粗雜進이나 而各有勝籌하야 攻無堅城이라 其銛(섬)鋒利刃이 森如武庫하고 趨時制敵이 動合兵機하니 繼此而爲文者 率此道也하면 定遠之飛食과 燕然

之勒銘이 其在是歟인저 其在是歟인저 雖然이나 房琯之車戰은 效跡於前人而敗하고 虞詡之增竈는 反機於古法而勝하니 則所以合變之權은 其又在時而不在法也로다

나의 벗 이중존이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고금의 과거시험 답안지를 모아 10권으로 분류하고 이름을 '騷壇赤幟'라 붙였다. 아! 이 글들은 모두 승리를 거둔 병사들이고 백 번 싸워 이긴 결과물이다. 비록 체격이 같지 않고 정밀한 것과 거친 것이 뒤섞여 있지만 각기 승산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하여 깨뜨리지 못할 견고한 성이 없다. 그 예리한 창끝과 칼날이 빽빽하기가 마치 무기고 같고 때에 맞추어 달려나가 적을 제압하니 그 움직임이 늘 병법의 기회에 부합한다. 이 뒤로 글을 짓는 이들이 이 길을 따른다면 정원후 반초의 비식과 두헌이 연연산에 공적비를 세운 방도가 아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방관의 거전법은 앞사람의 자취를 본받았으나 패배했고 우후가 아궁이수를 늘린 것은 옛 병법을 바꾸어서 승리를 거두었으니 부합하게 하느냐 변통하느냐의 권도는 또한 때에 있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